

“엄마, 나 일반고로 전학 갈래요”

취업 가뭄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광주지역 특성화고(직업계고)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고로의 전학생마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지원자가 감소한데다 재학생마저 일반고로 전학하는 바람에 학생수가 매년 수백 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특성화고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진로변경 전학'을 통해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옮겨 간 학생만 27명에 달했다. 반대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한 학생은 4명에 그쳤다. 진로변경 전학은 학업이 소질이나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광주에서는 고1·1학년에게 매 학기말에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광주지역의 진로변경 전학 추이를 보면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인원은 2017년 27명에서 2018년 29명 지난해 2019년에는 56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반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를 택한 학생은 2017년 2명에서 2018년 12명으로 늘었

광주 특성화고 전학생 증가...취업 가뭄·사회적 인식 탓
지난해 56명·올 1학기에만 27명...신입생 충원도 비상
학교 개편 등 교육 과정 내실화·제질 개선 적극 나서야

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8명으로 줄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전반적으로 전학이 위축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교육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저조한 취업률, 사회적 인식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2017년도 60%대였던 광주 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9년 50%대까지 급락했고, 신입생 충원률 역시 2018년 91%에서 2019년 88%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특성화고에선 내년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광주지역 특성화고 13곳 중 5개교가 입학정원을 못 채워, 정원 2560명 중 2312명만 등록해 248명이 미달 상태이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광주시교육청은 특성화고 정원을 2560명에서 2300명으로 대폭 줄여, 내년 신입생을 지난 4월 1차 모집한 결과 6개교에서 310명이 부족해 추가 모집에 나섰다. 공업계고의 기계와 금속, 화공 등 전통학과와 금융·전산 등 상업계고의 미달이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특성화고들은 중3 학생들을 수시로 학교로 초청해 진행하는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행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입생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정원을 채운다 해도 일반고로 전학가는 학생이 늘고 있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공업계고 한 교사는 “낮은 취업률에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며 최악의 상

황이 됐다”며 “코로나가 진정되고 실습 등 등교 수업 정상화로 학생들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특성화고가 학교개편 등 교육 과정 내실화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일부 특성화고가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가 하면 4개 학교가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스마트팩토리과, 바이오메디컬과, 영상미디어과, 스마트재산경영과)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 기초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재학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특성화고는 이미 산업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취업률도 하락하는 등 위기상황”이라며 “첨단 산업분야와 영상미디어·지적재산권 분야의 학교개편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고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보복 해임’ 감사 받는 명진고 복직 교사에 ‘뒤끝 처우’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보복 해임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명진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광주 명진고등학교에 대해 오는 14~18일까지 회계·학사·민원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는 일선 학교 종합감사 인원의 2배 규모인 감사관실 직원 10명과 시민감사관 1명 등 총 11명이 투입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6년 명진고 감사 결과를 통해 최진호 전 도연학원 이사장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최 전 이사장은 2017년 학교법인 명의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전 이사장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처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명진고 측은 손 교사를 해임 7개월여만인 9일자로 복직시켰다.

한편 ‘보복 해임’ 논란 후 7개월여 만에 복직한 광주 명진고 순군교 교사의 자리가 교무실이 아닌 휴식 공간인 통합지원실에 마련된데다, 책상마저 학생용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명진고측이 복직한 손 교사에게 빈 사무실에 학생 책상을 주고, 인사한 떡과 꽃을 받지 않는 등 ‘뒤끝 있는 처우’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교사 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 손 교사를 사실상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명진고 관계자는 “갑자기 복직돼서 교사 책상과 사무실 공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 교사가 맡은 과목에 다른 교사가 역할을 하고 있다. 손 교사는 자율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라 지원실에 일시 대기 장소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서구 ‘365생활민원’ 최우수

광주 서구가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한 2020년도 365생활민원센터 운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생활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평가와 민원처리문제점 개선을 위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365생활민원 추진체계 구축, 민원처리 능동성, 기관장 관심도, 365생활민원 처리건수 등 7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로 이뤄졌다.

서구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바로 뛰는 현장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1,60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등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마스크착용 범시민캠페인 및 기초철서지키기 운동을 꾸준히 펼쳐나가며 정결과 안전한 도시문화 정착에 힘써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BTS’ 지민 장학금 누가 받을까

전남미래교육재단, 예술 분야 등 2021년 9억6160만원 규모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은 제8기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열고 2021년에 9억 6160만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이 결정한 2021년 장학사업 계획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장학금 3억8760만원, 멘토와 함께하는 전남미래장학금 7500만원, 직업교육과 과학교육 전국대회 입상자에게 지원 하는 우수인재육성 장학금 7800만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방탄소년단(BTS) 지민 장학금은 방탄소년단 지민 군이 기탁한 기부금을 이용해 전남 지역 예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3년 간

총 1억800만원(2021년 3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은 장학금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에 3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 이사장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전남미래교육재단은 2004년 설립 이래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대비해 미래사회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장기적·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1회용품 사용 줄입니다 9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에서 북구 공무원들과 상인회원들이 '1회용품 사용제한 캠페인'을 열고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를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9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에서 북구 공무원들과 상인회원들이 '1회용품 사용제한 캠페인'을 열고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를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대 교양융합대 2개 강좌 ‘우수강좌’ 뽑혀

호남대학교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실시한 '2020년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 개선 대학'에 선정된 가운데, 교양융합대학의 2개 강좌가 한국교양교육협회의 추계학술대회 공모에서 우수강좌로 뽑혔다.

전국대학교교양교육협의회에서 우수 교양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주최한 이번 공모에서 호남대 융합학부 김승재 교수의 'AI와 디자인'은 우수상을, 융합학부의 고윤정·임세정 교수와 교양학부 김신정 교수가 함께 개발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해'는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이중 김승재 교수가 개발한 'AI와 디자인' 수업은 예술대학 학생들의 컴퓨터적 사고를 배양하여 AI 기술의 응용과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고윤정·임세정·김신정 교수가 공동개발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해'는 인문학과 공학을 결합한 융합교과목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도모를 통해 4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www.kwangshin.ac.kr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사 범 예 능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